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Involvement in Learning,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노보혜(Bo-Hay Noh)¹⁾

박성연(Seong-Yeon Park)²⁾

지연경(Yeon Kyung Chee)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involvement in learning,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33 fifth- and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liv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mothers with a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reported greater autonomy support behavior and involvement in their offspring's learning. Conversely, mothers with low incomes were found to use psychological control and were also found to be involved in learning to a lesser degre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children whose mothers were less involved in learning showed higher level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dditionally, maternal support for autonomy and psychological control had a number of moderating effec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involvement in learning and the child's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pecifically, children tended to exhibit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when mothers were more involved in learning among those who received less support in terms of autonomy. Conversely,

* 이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 가정학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전공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Yeon Park, Ph.D.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children ha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when mothers were less involved in learning when it came to those children who were under less psychological control.

Key Words : 사회경제적지위(Socioeconomic Statu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어머니의 학습관여(Maternal Involvement in Learning), 자기결정동기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 서론

대부분의 인간은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로서 자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Deci & Ryan, 2000), 타인으로부터 강요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학력 우선주의가 나타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스스로 도전과 흥미를 경험하며 자율성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부모가 정해진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스스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데 보내는 시간보다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과외 또는 학원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우남희·김유미·신은수, 2009). 이러한 이유로 아동들은 공부에 대해 도전과 흥미를 경험할 기회가 적으며, 자신이 어떤 것을 공부할 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 SDT)에 따르면, 아동이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을 유능하다고 지각하고, 특정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며 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 관계가 유지될 때, 다양한 맥락 속에서 아동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동기화가 일어나게 된다(Deci & Ryan, 2000). 특히, 학업 수행 시에 나타나는 동기화란 아동이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는 데 본인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화 과정에서 자율성이 높은 자기결정동기는 앞으로의 학업을 성공적으

로 이끄는 데에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 자녀에게 무엇을 언제 가르칠 것인지를 계획하고 아동의 학업 일정을 관리하며, 자녀 자신보다 양육자인 어머니가 더 영향력을 가지는 ‘알파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아동 스스로 학업을 하도록 이끄는 자율성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선택권이 대부분 부모에게 있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 학업수행 시에 어떠한 요인이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지와 자율적인 동기 형성을 돕는 환경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기결정동기에 관한 연구들(이민희·정태연, 2008; Soenens & Vansteenkiste, 2005)은 자기결정동기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이나 학업성취 및 유능감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어 왔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이경은·이주리, 2008; Schaefer, 1965) 특히, 아동의 학업수행이나 내·외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Ginsburg와 Bronstein(1993)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은 학업적

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고, 학업 수행 시에 타인의 평가나 지도 등 외부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함으로써 외적 동기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자원의 부족은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Brooks-Gunn, Kohen, & Linver, 2002), 결과적으로 아동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자율적인 동기를 형성하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모델링의 측면에서 살펴본 Trusty (1999)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교육수준을 모델로 삼아 학업수행을 위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양육행동이나 학업에 관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Zhang, 2005).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자녀가 미래의 삶을 계획하는데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물질적, 정보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정권과 선택에 기회를 더 많이 허락함으로써 자기결정동기 형성을 돕는다.

이 외에도 부모의 학습관여는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rolnick와 Ryan (1989)에 의하면, 부모가 학습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아동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대신, 부모가 학업을 주도하는 외적 동기를 촉진하게 된다(Ginsburg & Bronstein, 1993).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Bakker & Denessen, 2007; Zellman & Waterman, 1998).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나 학습 지원을 통한 학습관여가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경근, 2000; 주동범, 1998). 이에 반해, 부모로부터 높은 교육적 기대와 학업에 대한 통제를 받거나 관여할 때 자녀는 외부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으로 여겨,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자율적 동기를 저해시킨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김종백·김준엽, 2009). 같은 맥락에서 Grolnick과 Ryan(1989)도 부모가 학습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이나 학습관여 방식에 따라 자녀의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Esther & Willms, 1996; 김경근, 2000) 학습관여를 아동의 학교나 가정에서의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학업 수행을 조력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입시경쟁으로 과열된 사교육 열풍과 부모들이 보이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관심 속에서 아동 자신보다 학업에 더 영향력을 가지는 어머니의 주도적인 학습관여는 아동의 자율성을 낮춤으로써 지원적인 학습관여 방식과는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모의 학습관여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Zhang, Katsiyannis, & Zhang, 2002; Zhang, Wehmeyer, & Chen, 2005), 최근에는 국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자율성 지지 및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아동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의 자율적인 자기결정동기가 촉진되지만 부모

로부터의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양육을 받은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외부의 압력에 의해 통제적이고 비자율적인 자기결정동기를 촉진시키게 된다(Soenens & Vansteenkiste, 2005).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자율성 지지나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 또는 자기결정동기가 아동의 학업성취, 학업 유능감 및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이혜주, 2008; 장경문, 2007), 아동의 자기결정동기를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서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을 단일 차원 상에서 자율성을 지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측정하여왔다. 그러나 더 정확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외 연구들에서처럼 자율성 지지와 통제를 각기 다른 차원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Gottfried, Fleming과 Gottfried(1994)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의 독립적 사고, 문제해결 기술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학업수행에 참여를 한다면 아동의 내적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다(Bronstein, Ginsburg, & Herreral, 2005). 또한 자율성 지지행동이 곧 부모가 관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관여와 높은 자율성지지 행동이 합쳐졌을 때 아동의 학업적, 사회·정서적 능력발달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도 있다(Bugental & Grusec, 2006). 같은 맥락에서 Grolnick(2003)은 높은 관여와 낮은 자율성지지 행동이 혼합되었을 때, 아동의 발달을 가장 손상시키는 요소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비교한 연구(이숙, 1988; 이종승·오성심, 1982)들에 의하면, 아동이 자신의 여러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을 실제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양육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Schaefer, 196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분석으로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를 어머니지각과 아동지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 월소득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의 독립적인 영향력과 함께,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학습관여,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질문지에 대한 자기보고가 가능하며, 학업에 대한 자기결정동기를 형성해 가고 있는 시기인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남아·여 아동 333명(남 : 141명, 여 : 192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12.15세 ($SD = .57$)이며, 어머니의 연령은 41~45세가 118명(3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6~40세가 108명(32.4%)으로 많았다. 연구 대상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206명(5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 87명(25.1%), 대학원졸 36명(10.4%)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120명(36.0%)로 가장 많았으며, 500~600만원 미만인 49명(14.7%), 400~500만원 미만이 68명(19.6%), 300~400만원 미만이 54명(15.6%), 200~300만원 미만이 32명(9.6%), 200~100만원 미만이 9명(2.%)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자기결정동기

아동의 자기결정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충실하면서 한국의 일반적 상황에 맞도록 개발한 김아영(2002)의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Korea-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 K-SRQ-A)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조절 척도는 외적 조절(6문항), 부과된 조절(6문항), 확인/통합된 조절(6문항), 내재적 조절(6문항)의 네 가지 동기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인/통합된 조절(6문항)과, 내재적 조절(6문항)을 자율적 자기결정동기로, 외적 조절(6문항), 부과된 조

절(6문항)을 비자율적 자기결정동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의 성적 때문에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와 같이 공부하는 이유를 묻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원 척도는 6점 Likert식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였다. 자기결정동기 점수 산출 방식은 Ryan(2004)이 제안한 방식대로 자율성 지수(the Relative autonomy Index : RAI)를 이용하였다. 자율성 지수 산출 공식은 $[(2 \times \text{내적조절}) + \text{확인된 조절} - \text{부과된 조절} - (2 \times \text{외적조절})]$ 이며, 자율성 점수가 클수록 자율적 자기결정동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2)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

Grolnick, Ryan과 Deci(1991)가 개발한 부모에 대한 지각 척도(Perceptions of Parents Scales; POPS) 중 자율성지지 문항과 Williams와 Deci(1996)가 개발한 학습풍토 질문지(교사의 자율성 지지 측정을 위한), Soenens 등(2007)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도록 고안되어 있는 원척도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아동 자신의 지각 외에, 어머니의 지각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용 질문지는 어머니의 입장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나의 어머니는) 내(자녀)가 해야 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나는(나의 어머니는) 나(자녀)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등이 포함된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 척도로, 총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산출한 자율성 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아동이 보고한 경우는 .86, 어머니가 보고한 경우는 .77이었다.

3)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Soenens와 Vansteenkiste(2007)의 심리적 통제척도 중 성취 지향적 심리적 통제를 기초로 10문항을 구성한 김희영(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인 아동용 질문지와 함께 이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한 어머니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 예로는, “나(나의 어머니)는 내(자녀)가 실수를 하면 실망스러워 하신다.”, “나(나의 어머니)는 내(자녀)가 부족한 행동을 하면 사랑을 덜 보이신다.”를 들 수 있다. 본 척도는 Likert 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산출된 심리적 통제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아동이 보고한 경우는 .83, 어머니가 보고한 경우는 .85이었다.

4) 어머니의 학습관여 척도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학업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학습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하는지를 보고자하였으며,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어머니의 관여 방식을 살펴본 뒤,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여 방식(예 : 학업스케줄 계획하기, 하루 일과를 검토하기 등)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아동발달 전문가에 의한 안면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전체 척도는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용 질문지와 함께 이를 어머니용으로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

다. 문항의 예로는 “나(나의 어머니)는 나(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대신 짜주신다.”, “나(나의 어머니)는 내(자녀)가 공부하는 동안 일일이 옆에서 지도하신다.”를 들 수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습에 대한 주도적 관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습관여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아동이 보고한 경우는 .84, 어머니가 보고한 경우는 .82이었다.

5)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지표는 교육수준과 가정의 총 소득을 근거로 하였다. 교육수준은 1점(무학)부터 6점(대학원 졸업)으로 측정되었으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고졸 집단과 대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정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 사이를 100만원 간격으로 7단위로 1~7점으로 점수화하고, 통계청(2009)에서 제시하는 전국 도시 4인 가정 기준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당 5분위수와 자료 분석을 고려하여 1~3점은 ‘하’ 집단, 4~6점은 ‘중’ 집단, 7점은 ‘상’ 집단으로 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¹⁾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0년 1월~3월에 걸쳐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서울시 소재한 다섯 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다음 각 학급의 학생들에게 배부하

1) 2009년도 2/4 분기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의 소득 5분위수는 1분위 90만원, 2분위 208만원, 3분위, 297만원, 4분위 400만원, 5분위 658만원이다(2009 통계청).

여 회수하였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생들이 각자 가정으로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작성을 요청한 다음 다시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배부 후 1주일 뒤에 연구자가 학교를 재방문하여 회수하였으며, 배부된 450쌍의 아동용과 어머니용 질문지 가운데, 아동용과 어머니용이 모두 회수된 것은 333쌍(회수율 : 74%)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조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 *t*-test, 부분상관분석, 공분산분석(ANCOVA),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자기결정동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Soenens & Vansteenkiste, 2005; Thuneberg, 2004)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을 통제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의 학습관여, 심리적 통제,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동기 간의 부분상관계수를 구하고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기초분석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소득), 어머니 및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어머니 지각의 경우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r = -.24, p < .001$)과는 부적상관을,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r = .30, p < .001$)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아동이 지각한 경우 역시,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r = -.25, p < .001$)과 부적상관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r = .37, p < .001$)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아동의 자기결정동기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는 유의

〈표 1〉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부분상관관계 ($N = 330$)

변인	1	2	3	4	5	6	7	8	9
1. 모의 교육수준	-								
2. 가정 월 소득	.33***	-							
<u>어머니 지각</u>									
3. 학습관여	.09	.24***	-						
4. 자율성 지지	.15**	.02	-.24***	-					
5. 심리적 통제	-.07	.08	.30***	-.38***	-				
<u>아동 지각</u>									
6. 학습관여	.09	-.08	.40***	-.14*	.19***	-			
7. 자율성 지지	.11	-.01	-.04	.24***	-.21***	-.25***	-		
8. 심리적 통제	.04	.07	.05	-.10	.19**	.37***	-.55***	-	
9. 자기결정동기	.04	-.01	-.05	.01	-.02	-.25***	.45***	.40***	-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학습관여, 양육행동 및 자기결정동기의 *t*-test (*N* = 293)

연구 변인	교육수준	대졸(<i>N</i> = 206) <i>M</i> (<i>SD</i>)	고졸(<i>N</i> = 87) <i>M</i> (<i>SD</i>)	<i>t</i>
어머니의 학습관여		1.89(.51)	1.74(.51)	-2.30*
자율성지지 양육행동		3.01(.54)	2.88(.53)	-1.80
심리적통제 양육행동		1.88(.56)	1.80(.54)	-1.33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4.39(14.0)	3.11(12.2)	-7.4

* *p* < .05.

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습관여($r = -.25, p < .001$)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r = -.40, p < .001$)과는 부적상관을,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r = .45, p < .001$)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동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아동이 지각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학습관여, 자율성지지와 심리적 통제 및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의 차이

연구문제 1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학습관여, 자율성지지와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을 통제한 공분

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 월 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학습관여($F = 8.27, df = 1, 291,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 아동의 자기결정동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수준에 따른 학습관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대졸 어머니집단이 고졸 어머니 집단보다 학습관여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 = 2.30, p < .05$).

한편,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학습관여, 양육행동 및 자기결정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습관여($F = 3.50, df = 2, 331, p < .05$)와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F = 3.76, df = 2, 331,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표 3〉 가정 월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학습 관여, 자율성지지, 심리적 통제 및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의 공분산분석 (*N* = 332)

변인	상(<i>N</i> = 102) <i>M</i> (<i>SD</i>)	중(<i>N</i> = 171) <i>M</i> (<i>SD</i>)	하(<i>N</i> = 59) <i>M</i> (<i>SD</i>)	<i>F</i>
어머니의 학습관여	1.86(.49) ^a	1.89(.52) ^a	1.66(.49) ^b	3.50*
자율성지지 양육행동	3.00(.60)	2.96(.50)	3.00(.56)	.06
심리적통제 양육행동	1.87(.55) ^a	1.90(.55) ^a	1.64(.54) ^b	3.76*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1.73(2.60)	1.66(2.51)	1.95(2.26)	.51

주. a, b 같은 기호인 경우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p* < .05.

나타났다. 이에 Duncan 검사를 통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가정 월 소득이 ‘상’인 집단과 ‘중’인 집단이 ‘하’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하’인 집단의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낮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인 집단과 ‘중’인 집단이 ‘하’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하’인 집단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은 낮았다(표 3 참조).

3.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결정 동기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자율성지지 및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독립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15~3.45로 다중공선성 기준인 VIF < 10에 근거하여 볼 때, 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Model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 월 소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2에서 자율성지지 양육행동($\beta = .25, p < .001$)은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beta = -.21, p < .001$), 어머니의 학습관여($\beta = -.14, p < .01$) 순으로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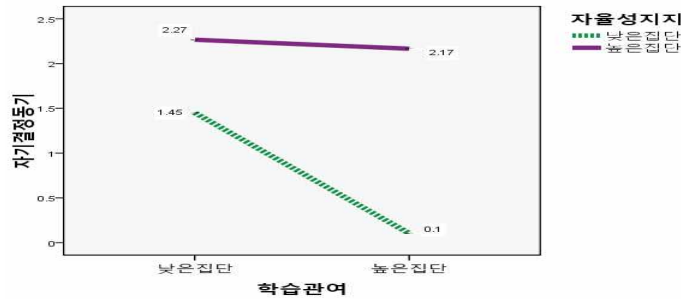
한편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중재되는가를 알아본 Model 3에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 양육행동($\beta = .20, p < .05$) 및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beta = -.21, p < .05$)과 어머니의 학습관여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습관여와 양육행동은 각각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래프화 한 결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낮은 경우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 간의 부적인 관계가 유

(표 4)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대한 사회경제적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의 위계 적 회귀분석(β)
($N =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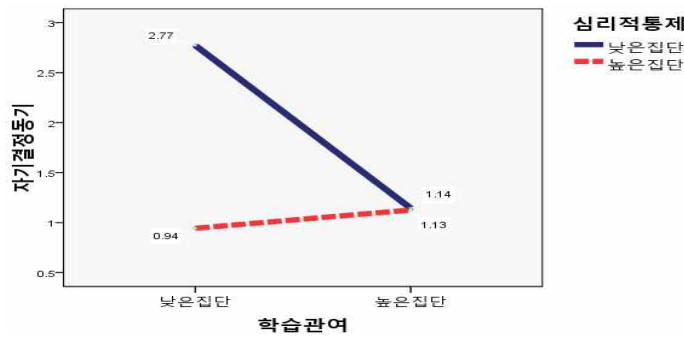
독립변인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Model 1	Model 2	Model 3
어머니의 교육수준	.06	.06	.06
가정 월 소득 1	-.10	-.01	-.02
가정 월 소득 2	-.08	.02	.01
어머니의 학습관여(A)		-.16**	-.22**
자율성지지 양육행동(B)		.23***	.12
심리적통제 양육행동(C)		-.22***	-.12
A×B			.20*
A×C			-.21*
R^2	.01	.21	.23
ΔR^2		.20	.02
$F(df)$.72(3, 327)	14.27(6, 324)***	11.83(8, 322)***

주. 가정 월 소득은 더미 변수화함(월소득1 = 중, 월소득2 = 상).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어머니의 자율성지지와 학습관여 상하에 따른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그림 2〉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학습관여 상하에 따른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의해($t = 3.28, p < .01$), 학습관여가 높을 때 자율적인 자기결정동기가 가장 낮았다. 반면, 자율성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t = 1.57, ns$) 아동의 자기결정동기가 높았다(그림 1 참조). 또한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그림 2 참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낮은 경우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자율적 동기 간에 부적 관계가 유의해($t = 3.23, p < .01$),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낮고 심리적 통제가 낮은 경우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가 가장 높았다. 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t = .57, ns$), 학습관여 정도에 상관없이 자기결정동기가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머니의 학습관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차이가 있는지와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초분석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를 어머니 지각과 아동 지각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경우만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성취 지향적인 심

리적 통제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와 부적, 자율성 지지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자녀의 자율적 동기를 높이며, 부모가 학습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심리적 통제를 할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Bronstein, Ginsburg, & Herreral, 2005; Grolnick & Ryan, 1989)와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며, 어머니가 학습에 관여를 하더라도 아동이 자발적인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아동의 자율적인 학습동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어머니가 지각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효능감, 성격발달에 있어 부모의 실제 양육방식보다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지향, 2000; 하영화, 2009)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아동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지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기결정동기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대졸집단 어머니의 학습관여 정도가 고졸집단 어머니보다 높았다. 또한 가정 월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중이나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 월소득이 높은 어머니들의 경우,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학습 관여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자녀의 학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덜

둔다는 연구결과(Esther & Willams, 1996)와 유사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물질적, 정보적인 면에서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김은정, 2007),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자녀에 학업에 더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머니의 학습관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력이 아동의 교육을 좌우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학습관여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아동의 자기결정동기를 높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로부터 의사결정이나 학업 수행에 대한 격려를 포함한 자율성을 지지받은 경험이 높을수록 아동이 더 내재화된 동기를 높이게 된다는 연구결과(Bronstein, Ginsburg, & Herreral, 2005; Ginsburg & Bronstein, 1993)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 통제 양육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는 낮았다. 이는 낮은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정서적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행동이 아동의 외적인 동기를 촉진시킨다는 결과(Pettie,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와 유사하다. 또한,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의존하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요인으로써, 낮은 학업 수행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은 자율적 자기결정동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습관여 역시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 자녀의 자발적인 학업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Ginsburg & Bronstein, 1993)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종백·김준엽, 2009; Esther & Willams, 1996)과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학업을 돕거나 관리하고 학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학습관여를 정의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업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과 같이 지원적이거나 아니면 어머니 주도적이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부모 주도적인 학습 환경은 자녀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 월 소득은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 성취 및 학업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이운경·도현심, 2005; Ginsburg & Bronstein, 1993)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측정방법이나 연구 대상 아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 보고와 아동 보고를 비교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 수준 및 가정 월 소득으로 본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이 지각한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가정환경변인을 살펴본 남덕진과 이종승(2002)에 의하면, 아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신념,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 경우, 어머니의 학습관여의 정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자율적 자기결정동기가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낮을 경우, 어머니가 높은 학습관여를 보일 때 아동의 자기결정동기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자율성지지와 관여가 높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발달을 이룬다는 Bugental과 Grusec(2006), Grolnick(2003)의 주장을 지지한다. 어머니의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 통제 역시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이 낮은 경우는 어머니가 학습관여를 적게 할 때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가 가장 높았으나,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 통제가 높은 집단의 경우는 학습관여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자율적 자기결정동기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학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자녀를 통제적으로 대하거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을 때, 자녀의 자율적 동기를 저해시킨다는 연구 결과들(Gottfried et al., 1994)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이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을 받을 때에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높더라도 그것을 지원적 행동으로 받

아들일 수 있으나, 성취 지향적인 심리적인 통제를 경험할 때는 어머니가 학습관여를 적게 하더라도 간섭적이고 통제적인 것으로 지각되어 아동의 자율적인 자기결정동기를 저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가정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학습되는 것이라 보고한 선행연구(Paris & Newman, 1990)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율적 자기결정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학습에 관여하더라도 아동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능력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자율성을 격려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가정의 월소득으로 구분하였고, 모의 교육수준은 고졸, 대졸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 집단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다양하게 선별하지 못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만 표집되어졌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중·고등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습관여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자녀의 학습수행에서 아버지의 역할 역시 자녀의 자율적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정지영·김희화, 2004), 아버지의 학습관여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결정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학습관여를 자녀보다 학업

에 더 영향력을 가지고 간섭적으로 개입하는 특성으로서 정의함으로써,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알파맘’의 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점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참 고 문 헌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은정(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134-162.
- 김종백·김준엽(2009). 학업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습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9(2), 389-412.
- 김희영(2007).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덕진·이종승(2002). 초기 가정환경변인과 자아개념의 관계. **교육학회지**, 40(3), 111-130.
- 박석철(2007). 부모의 교육 참여와 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동기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남희·김유미·신은수(2009). 조기교육/사교육. **아동학회지**, 30(6), 249-266.
- 이경은·이주리(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부모양육 행동과 가정폭력의 매개 역할. **놀이치료연구**, 12(3),

- 1-15.
- 이민희 · 정태연(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4(1), 77-99.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운경 ·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종승 · 오성심(1982).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서울 : 행동과학연구**, 11(1), 1-15.
- 이지향(2000). 지각성향에 따른 아동의 타인 인상평가와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 니와의 지각 불일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상담 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주(2008). 아동의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관련이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분석. **아동학회지**, 29(3), 273-288.
- 임은미(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경문(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에 따른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적의 차이. **초등교육연구**, 20(1), 165-179.
- 정지영 · 김희화(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율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63-173.
-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1), 41-56.
- 통계청(2009). www.nso.go.kr. 2009년 2/4분기 가계동향.
- 하영화(2009).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ssor, A., Roth, G., & Deci, E. L. (2004). The emotional costs of parents' conditional regard : A SDT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2, 47-88.
- Bakker, J., & Denessen, E. (2007). The concept of parent involvement :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about Parents in Education*, 1, 188-199.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l, I. S. (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559-575.
- Bugental, D. B., & Grusec, J. E. (2006). Socialization proces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Vol 3, pp. 366-428). Hoboken, NJ : Wiley.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H., Roberts, D. F., & Fraleigh, M. J.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Esther, H. S., & J. D. Williams (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 126-141.
- Ginsburg, G. S., & Bronstein, P. (1993). Family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1461-1474.
- Gottfried, A. E., Fleming, J., & Gottfried, A. W. (1994). Role of parental motivational practices in children's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04-113.
- Grolnick, W. S. (2003). *The psychology of parental control; How well-meant parenting backfires*. Mahwah, NJ : Erlbaum.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The inner resources for school performance :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508-517.
- Paris, S. G., & Newman, R. S. (1990). Developmental asp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 87-102.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correlat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 583-598.
- Ryan, R. M. (2004). *The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SRQ-A)*. [http : //www/psycho.rochester.edu/SDT/index.html](http://www/psycho.rochester.edu/SDT/index.html).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erow, R., Castelli, P., & Castelli, V. (2000). *Socioal foundations of American education* (2nd ed.). Durham, NC : Carolina Academic Press.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three life domains :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589-604.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 Adolescent Perception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 Psychology, 43*, 633-646.
- Thuneberg H. (2004).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the fulfillment of psychological needs at school, university of Helsinki, Finland.
- Trusty, J. (1999). Effects of eighth-grade parental involvement on late adolescents' educational expectation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32*. 224-233.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and Social Psychology, 70*, 767-779.
- Zhang, D. (2005). Parent practices in facilitating self-determination skills : The influences of cul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special education status. *Research &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30*, 154-162.
- Zhang, D., Katsiyannis, A., & Zhang, J. (2002). Teacher and parent practice on fostering self-determi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25*, 157-169.
- Zhang, D, Wehmeyer, M. L., & Chen, L. J. (2005). Parent and teacher engagement in fostering self-determination in students with disabilities : A comparison between the U.S. and the R.O.C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6*, 55-64.
- Zellman, G., & Waterman, J. (1998), Understanding the impact of parent school involvement on children's educational outcom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1*, 370-380.

2011년 4월 30일 투고, 2011년 7월 18일 수정
2011년 7월 28일 채택